

박동실제(朴東實制) 유관순(柳寬順) 열사가(烈士歌)¹⁾
박동실 작(作) 장월중선(張月中仙) 전(傳) 정순임(鄭順任)²⁾ 소리
dolmin98@naver.com 김석민

[아니리]

때는 1904년³⁾ 국운이 불행하야 조정은 편벽(偏僻)되고, 왜적이 침입하니 간신이 득세(得勢)로다. 보호(保護) 조약(條約)⁴⁾ 억지(抑止)하니[勒]⁵⁾ 억울한 한일합병(韓日合併)⁶⁾ 뉘가 아니 분개(憤慨)하며 간신들의 매국적 부귀탐욕 일시(一時) 영화(榮華) 꿈을 꾸어 조국을 어찌 돌아보리. 반만년 우리 역사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무너지고 삼천만 분한 설움 삼월 일일 폭발되니 피 끓는 독립투사 도처마다 일어나 의를 세워 분투(奮鬪)할 제, 유관순(柳寬順)⁷⁾은 누구든고 십육 세 어린 처녀 근본부터 이를진대,

[진양조]

충남 천안 삼거리에 수양청청(垂楊靑靑)⁸⁾ 능수버들은 우리나라에 유명거든 지기상합(志氣相合)⁹⁾ 다시 부르려 구 목천(木川)¹⁰⁾ 지령리에 평화로운 유 씨 가정 관순 처녀 태어나니 일대명전(一代名傳)¹¹⁾ 순국(殉國) 처녀(處女) 도움 없이 삼겼으랴.¹²⁾ 계룡산(鷄龍山)수 창현¹³⁾ 기운 지령리에 어려 있고 금강 수 흐르난 물은 낙화암(落花巖)을 돌고 도니 삼천궁녀(三天宮女) 후인(後人)¹⁴⁾인지¹⁵⁾ 귀인(貴人) 자태

1) 박동실(朴東實, 1897~1968)은 서편제 소리의 대가(大家)로 북한에서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받기도 했다. ‘박동실 제 유관순 열사가’는 그가 작창한 역사가(歷史歌) 중 하나로, 유관순 열사에 관한 추모곡이다.

2) 정순임(1942~)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소리 명가 제 1호로 지정한 ‘장판개(張判蓋, 1885~1937, 동편제 소리의 대가로 고종으로부터 참봉 벼슬을 제수 받았다)-장영찬(張泳讚, 1930~1981)-장월중선(張月中仙, 1925~1998, 악가무의 명인이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가야금 병창 보유자였다)-정순임’ 가계의 명창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이기도 하다.

3) 1904년 :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승기를 잡아 이후 국권피탈음모를 노골화한다.

물론, 1904년은 유관순(柳寬順) 열사가 태어난 해인 1902년이 와전(訛傳)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4) 보호(保護) 조약(條約) : 을사늑약(乙巳勒約). 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조약이다.

5) 억지(抑止)하니[勒] : 늑(勒, 억제하다). 늑약(勒約, 억지로 맺은 조약).

6) 한일(韓日) 합방(合邦) : 경술국치(庚戌國恥).

7) 유관순(柳寬順) : 독립운동가(1902~1920). 여성으로서 18세 때 이화 학당 고등과 1년생으로 3·1 운동에 참가한 뒤,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를 삼창하며 시위하다 왜경에 체포된 후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8) 수양청청(垂楊靑靑) : 수양(垂楊)버들이 매우 푸르다.

‘수양(垂楊)’은, 벼드나뭇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 높이는 1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피침 모양인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봄에 꽃이 피는데 암꽃은 원기둥꼴 이삭 모양이고 수꽃은 누런색이고 수술이 두 개이다. 열매는 삭과(蒴果)로 여름에 익고 솜털을 날린다. 풍치목으로 재배한다. 중국이 원산지로 아시아, 유럽에 분포한다.

9) 지기상합(志氣相合) : 두 사람 사이의 의지와 기개가 서로 잘 맞음.

10) 목천군(木川郡) : 유관순 열사의 고향으로 나중에 천안에 합쳐졌다. 열사는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현재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났다.

11) 일대명전(一代名傳) : 한 시대에 이름을 전하다.

12) 삼겼으랴 : 생겨났으랴.

13) 계룡산(鷄龍山)수 창현 : ‘계룡산과 물의 크고 성대한’이라는 뜻의 ‘계룡산수(鷄龍山水) 장(壯)현’이나 ‘계룡산의 빼어나게 맑은’이라는 뜻의 ‘계룡산(鷄龍山) 수청(秀清)현’일 수 있다.

(姿態)¹⁶⁾ 아름답고, 월궁항아(月宮姮娥)¹⁷⁾ 환생(還生)현지¹⁸⁾ 뚜렷한 그 얼굴은 의중지심¹⁹⁾이 굳고 굳어 미간(眉間)²⁰⁾에가²¹⁾ 어렸으니 일대(一代)²²⁾ 영양(令嬢)²³⁾이 분명쿠나.

[아니리]

그의 부친 유중권(柳重權)²⁴⁾ 씨는 성심이 청렴(清廉)하사 부귀(富貴)를 원치 않고²⁵⁾ 농업 장생²⁶⁾ 글을 읽어 가는 세월을 소유허니²⁷⁾ 정대(正大)한²⁸⁾ 예문은 군자의 덕행이요, 그의 아내 이씨(李氏) 부인(婦人)²⁹⁾ 또한 만사가 민첩하사 예국예절³⁰⁾이 능란허니 뉘³¹⁾ 아니 정대[敬待]허리오.³²⁾ 자녀 간의 사남매를 금옥(金玉)같이 길러내어 부모의 유전인지 모두 다 현숙(賢淑)한지라³³⁾ 더욱이 관순(寬順)이는,

[단중모리]

어려서부터 커날 적에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라. 부모으게³⁴⁾ 효도(孝道)하고 동기으게 화목(和睦)허기, 예의염치(禮義廉恥)³⁵⁾ 귀염좌립[起居坐立]³⁶⁾ 뉘 아니 칭찬하며, 유(類)다른³⁷⁾ 그 인정은 사랑흡고³⁸⁾

14) 후인(後人) : 후대(後代)의 사람.

15) 후인(後人)인지 : 사설에 따라, ‘후인인 듯’을 쓰기도 한다.

16) 자태(姿態) : 어떤 모습이나 모양. 주로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에 대하여 이르며 식물, 건축물, 강, 산 따위를 사람에 비유하여 이르기도 한다.

17) 월궁항아(月宮姮娥) : 전설에서, 달에 있는 궁에 산다는 선녀.

18) 환생(還生)현지 : 사설에 따라, ‘환생(還生)허니’를 쓰기도 한다.

19) 의중지심 : ‘의중지심(意中至心, 마음속의 더없이 성실한 마음)’인 듯하다.

20) 미간(眉間)에가 : 두 눈썹의 사이.

21) 에가 : ‘에’의 전북 방언. 『전라북도 방언사전』 ‘에가’ 항목
(ko.dict.naver.com/#/entry/koko/af2fb40cd61a4937a2d2b49ab5810c78) 참고.

22) 일대(一代) : 한 시대나 한 세대 전체.

사설에 따라, ‘일세(一世, 한 시대나 한 세대)’를 쓰기도 한다.

23) 영양(令嬢) : 윗사람의 딸을 높여 이르는 말.

24) 유중권(柳重權) : 유중권(1863~1919)은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이자 유관순 열사의 부친이다.

25) 부귀(富貴)를 원치 않고 : 사설에 따라, ‘일동일정(一動一靜)을 경솔히 아니 허고’를 쓰기도 한다.

26) 장생 : 미상(未詳).

27) 소유허니 :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 내려가니’라는 뜻의 ‘소유(溯游)허니’나, ‘마음 내키는 대로 슬슬 거닐며 돌 아다니니’라는 뜻의 ‘소요(逍遙)허니’나,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니’라는 뜻의 ‘소일(消日)허니’인 듯하다.

28) 정대(正大)한 : 바르고 당당한.

29) 이씨(李氏) 부인(婦人) : 이소제(李少悌). 이소제(1975~1919)는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이자 유관순 열사의 모친이다.

30) 예국예절 : 애국예절(愛國禮節).

아니면, 여성들이 하던 길쌈질에 대한 재주와 기질을 뜻하는 ‘여공재질(女功才質)’의 변형일 수도 있다.

31) 뉘 : ‘누가’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32) 정대허리오 : ‘경대(敬待)하리오. 공경하여 대접하리오.

33) 현숙(賢淑)한지라 :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지라.

34) 부모의게 : 부모에게.

35) 예의염치(禮義廉恥) :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

따뜻해야 사람마다 정복 되고 정대한 그 마음은 신의가 분명쿠나. 때는 마침³⁹⁾ 봄이 되어 동지⁴⁰⁾들과 어깨 끼고 꽃노래 나물 캐기 밤이면 술래잡기 가는 세월 어느덧이 곱게 곱게 자라날 제,

[아니리]

삼월 보름 좋은 때는 관순 처녀(處女) 생일(生日)⁴¹⁾이라 관순을 옆에 앉혀 좋은 음식을 먹일 제,

[창조]

바라보던 그 부친은 별안간 한숨을 길게 쉬며 나라 없는 장탄수심(長歎愁心)⁴²⁾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⁴³⁾ 맷거니 흐르며

[아니리]

영특한 관순이는 부친의 뜻을 어찌 모르랴. 부친을 만단(萬端)⁴⁴⁾으로 위로하고 그날부터 어린 가슴 애국정열 굳고 굳어 가슴속에 맷인지라. 세월은 훌러가고 관순은 차차 장성하여 소학과[普通科]⁴⁵⁾를 마치고 서울 이화(梨花) 학당(學堂)⁴⁶⁾ 고등과(高等科)에 입학하니 이곳은 변화(繁華)한지라. 세계 여론과 유언비어(流言蜚語)⁴⁷⁾가 떠돌고 매국(賣國)한 무리들은 왜놈의 세력의 힘을 믿고 의기가 양양하여 지니 뜻이 있는 지사들은 일성(一聲)⁴⁸⁾ 장탄(長歎/長嘆)⁴⁹⁾에 해외로 망명을 연속하고 이 강산 이 땅은 흉몽(凶夢) 중에 잠겼더라. 그때여⁵⁰⁾ 관순은 이화 학당 후원에 훌로 앉아 자탄을 허는디,

[진양조]

“창창(蒼蒼)한⁵¹⁾ 만리(萬里) 건곤(乾坤) 호호망망(浩浩茫茫)⁵²⁾ 멀어 있고, 애달풀사⁵³⁾ 이 강산에 청춘

36) 귀염좌립 : 기거좌립(起居坐立). 일어서고 앉고, 앉고 일어서는 행동거지.

37) 유(類)다른 : 여느 것과는 아주 다른.

38) 사랑흡고 : 사랑스럽고.

39) 마침 : 마침.

40) 동지 : 사설에 따라, ‘동기(同氣)’나 ‘동무’를 쓰기도 한다.

41)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음력 11월 17일)에 태어났다.

42) 장탄수심(長歎愁心) : 근심스런 마음으로 길게 탄식한다.

43) 듣거니 :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거니.

44) 만단(萬端) : 여러 가지.

45) 소학과[普通科] : 보통과(普通科).

“유관순은 1918년 3월 18일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1일 고등과 1학년에 진학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encykorea.aks.ac.kr) ‘유관순’ 항목 참고.

46) 이화(梨花) 학당(學堂) : 조선 고종 23년(1886)에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턴(Scranton, M.) 부인이 설립한 여성 교육 기관. 이화 여자 대학교의 전신이다.

47) 유언비어(流言蜚語) :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48) 일성(一聲) : 하나의 소리. 또는 말 한 마디.

49) 장탄(長歎/長嘆) : 긴 한숨을 지으며 깊이 탄식하는 일.

50) 그때여 : 그때에.

51) 창창(蒼蒼)한 : 앞길이 멀어서 아득한.

아니면, ‘갈 길을 잊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아득한’이라는 뜻의 ‘창창(倀倀)한’일 수도 있다.

남녀(青春男女)를 부르건마는 힘이 없는 우리 민족 호소할 곳 바이없어 아무리 슬피 운들 주인 없는 이 강산에 나라 없는 백성이라. 옛 성현(聖賢)이 이르기를 군신유의(君臣有義)⁵⁴⁾의 중한 법은 오륜(五倫)⁵⁵⁾ 중의 으뜸이요, 부자유친(父子有親)⁵⁶⁾ 천륜(天倫)으로 앞을 서지 못했으니 이 모두가 대의 분별(分別)하심이라. 내가 비록 여잘망정 배달⁵⁷⁾ 혈통(血統)이 그 아닌가. 천창만검(千槍萬劍)⁵⁸⁾ 살기(殺氣) 중에 진(陣)을 둘러 싸우기는 장부(丈夫)같이 못하여도 내 한 목숨이 끊어져서 국민(國民) 의무(義務)를 지키는 것을 어찌 남녀가 다를쏘냐. 울울(鬱鬱)한⁵⁹⁾ 이내 심사 하느님께 맹세하고 처참난유[千斬萬戮]⁶⁰⁾ 될지라도 한번 먹은 이내 심사는 변(變)할 리가 없으리라.”

[아니리]

이렇다이⁶¹⁾ 슬피우니 두 눈에 눈물만 흘려 앞섶을 다 적시고 구곡간장 타는 가슴 혼문수탐⁶²⁾ 되었더라. 이화 학당으로 돌아와 관순이 생각허기를 우리가 배움이 없어 내 나라를 잃었으니 많은 연구와 공부에 열중하리라.

[휘중증모리]

천성이 본래 활발해야 만사(萬事)를 달통(達通)하고 뛰어난 그 총명(聰明)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 일을 깨우치고 한번 일러 허는 말은 일호차책[一毫差錯]⁶³⁾이 없는지라. 이화 학당 새 봄빛은 꽂다운 우리 처녀 동방(東方) 예의(禮儀)가 분명하고 언정이순(言正理順)⁶⁴⁾ 그의 덕⁶⁵⁾은 여러 선생 칭찬이요, 자비한 그 인정⁶⁶⁾은 동무들게⁶⁷⁾ 감탄이라. 휴가일에는 빨래하기 새이새이⁶⁸⁾ 자습이요, 기숙사 실내 안을

52) 호호망망(浩浩茫茫) : 호호망망(浩浩茫茫)하다. 끝없이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53) -근사 :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할 자리나 하오할 자리나 해요할 자리에 쓰여,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54) 군신유의(君臣有義) :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는 의리에 있음을 이른다.

55) 오륜(五倫) :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을 이른다.

56) 부자유친(父子有親) :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을 이른다.

57) 배달 : 우리나라의 상고 시대 이름. 한자를 빌려 ‘倍達’로 적기도 한다.

58) 천창만검(千槍萬劍) : 수많은 창과 칼.

59) 울울(鬱鬱)한 : 우울한. 마음이 상쾌하지 않고 매우 답답하다.

60) 처참난유[千斬萬戮] : 천참만륙(千斬萬戮). 수없이 목이 베여 죽임을 당하다.

61) 이렇다이 : 이렇듯이.

62) 혼문수탐 : 미상(未詳)

‘만목수참(滿目愁慘, 눈에 띠는 모든 것이 시름겹고 참혹하다)’이나 ‘만면수참(滿面羞慚, 얼굴에 가득 찬 부끄러운 기색)’인 듯하다.

사설에 따라, ‘홍면수참(紅面羞慚)’으로 보기도 한다.

63) 일호차책[一毫差錯] : 일호차착(一毫差錯). 아주 작은 잘못이나 어긋남.

64) 언정이순(言正理順) : 말이나 이치가 바르고 옳다.

65) 그의 덕 : ‘그 일동(一動)’의 변형인 듯하다. 사설에 따라, ‘그대들’이나 ‘그대 등’의 변형으로 보기도 한다.

66) 그 인정 : ‘그 일정(一靜)’의 변형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표현이 ‘그 일동’의 변형이라면 앞뒤의 표현이 ‘일동일정(一動一靜)’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67) 동무들게 : 동무들에게.

68) 새이새이 : 사이사이.

남의 손 댈 새 없이 거울같이 소제(掃除)하니,⁶⁹⁾ 일향처사(一向處事)⁷⁰⁾ 맘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다. 위생에 중한 책임 건강의 관념이요, 부녀부(婦女部)⁷¹⁾ 정결함은 온 가정의 근본이라. 이 강산 이 땅 위에 부족한 우리 위생, 관순은 미리 알고 여유시간 소제함을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니리]

이렇듯 세월은 훌려 관순 나이 십육 세라. 그때여 고종(高宗)⁷²⁾ 황제께서는 조선조(朝鮮朝)⁷³⁾ 제26대 왕으로서 선왕(先王)인 철종(哲宗)⁷⁴⁾이 세자(世子) 없이 돌아가시자 조(趙) 대비(大妃)⁷⁵⁾가 옥새(玉璽)를 잡고 영조(英祖)의 현손(玄孫)⁷⁶⁾인 흥선(興宣) 대원군(大院君)⁷⁷⁾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디, 고종은 왕위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것이었다. 이 때에 일본은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고종 황제를 덕수궁(德壽宮)⁷⁸⁾에 머무르게 하야 세월을 보내는디,⁷⁹⁾ 그것도 모자란 일본은 그 후 1910년에 한일합방(韓日合邦)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완전히 저희 손아귀에다가 넣고 고종 황제를 죽일 음모(陰謀)를 꾀하는 중,

[휘중증모리]

그때여 고종 황제께서는 오백 년 사직을 잊고 분함이 충천(衝天)하되,⁸⁰⁾ 강약(強弱)을 이미 아신 고로

69) 소제(掃除)하니 :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니.

70) 일향처사(一向處事) : 항상 하는 일.

71) 부녀부(婦女部) :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의 부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듯하다.

72) 고종(高宗) : 조선의 제26대 왕(1852~1919). 대한 제국의 제1대 황제이기도 하다. 이름은 희(熙). 자는 성임(聖臨)·명부(明夫). 호는 성현(誠軒). 안으로는 대원군과 명성 황후와의 세력 다툼, 밖으로는 구미 열강의 문호 개방 압력에 시달렸다. 1894년 갑오개혁을 단행한 뒤 일본의 힘을 빌려 내정 개혁을 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897년 국호와 연호를 각각 대한(大韓)과 광무(光武)로 고치고 황제라고 칭하였으나,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퇴위하였다. 재위 기간은 1863~1907년이다.

73) 조선조(朝鮮朝) : 1392~1910년에 한반도를 지배하던 왕조.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명의 임금이 계승하였다.

74) 철종(哲宗) : 조선 제25대 왕(1831~1863). 이름은 변(昇). 초명은 원범(元範). 자는 도승(道升). 호는 대용재(大勇齋). 현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순원 왕후의 명으로 궁중에 들어가 즉위하였다. 재위 기간 동안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삼정(三政)의 문란이 더욱 심해져 삼남 지방에 민란이 빈발하는 등 백성의 생활이 도탄에 빠졌다. 재위 기간은 1849~1863년이다.

75) 조(趙) 대비(大妃) : 조선 순조의 세자인 익종의 비(妃)(1808~1890). 순조 19년(1819)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834년에 왕대비가 되었고 광무 3년(1899)에 익왕후(翼王后)로 추존되었다.

76) 현손(玄孫) :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여기에서는, 영조의 현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恒應, 1820~98)을 가리킨다.

77) 흥선(興宣) 대원군(大院君) : 조선 고종 때의 정치가(1820~1898). 이름은 이하응(李恒應). 호는 석파(石坡). 고종의 아버지로, 아들이 12세에 왕위에 오르자 설정하여, 서원을 철폐하고 외척인 안동 김씨의 세력을 눌러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따위의 내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한편으로는 경복궁의 중건, 천주교에 대한 탄압, 통상 수교의 거부 정책을 고수하여 사회·경제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78) 덕수궁(德壽宮)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동에 있는 조선 시대의 궁궐. 본래는 행궁(行宮)이었으나 선조 26년(1593)에 의주에서 환도한 후 보수하여 궁궐로 삼았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중화전, 함녕전, 석조전 등이며 정문으로 대한문이 있다. 우리나라 사적이다.

79) 보내는디 : 보내는데.

80) 충천(衝天)하되 : 분하거나 의로운 기개, 기세 따위가 북받쳐 오르다.

백성의 생명을 더욱 아껴 갖은 지옥[恥辱]⁸¹⁾ 십 년간에 외로운 덕수궁(德壽宮)에 세월을 보내실 제 우리나라 간신들은 왜놈의 세력을 더욱 추세(趨勢)하여⁸²⁾ 공훈(功勳)⁸³⁾이 씩씩 올라가고 이완용(李完用),⁸⁴⁾ 송병준(宋秉畯)⁸⁵⁾ 만고역적(萬古逆賊)⁸⁶⁾ 놈들 부귀(富貴)가 더욱이 혁혁(奕奕)하여지되⁸⁷⁾ 심중(心中)에 있는 근심은 고종 황제 생존(生存)하심이라. 기회를 자주 엿보더니, 슬프다 고종 황제 우연(偶然)히 득병(得病)하시니 이완용 정성(精誠)이 있는 체하고 좌우(左右)를 물린 후에 탕약(湯藥)⁸⁸⁾을 이완용 손에 거쳐 고종 황제 잡수시니 그 가운데는 무슨 음모와 비밀(秘密)이 있는지라. 병세(病勢)는 더욱 위중(危重)하여 눕고 일지⁸⁹⁾ 못하시더니 그대로 황제는 붕(崩)하신다.⁹⁰⁾ 삼천리 이 강산에 군부(君父)⁹¹⁾ 상사(喪事)⁹²⁾ 슬픈⁹³⁾ 설움 원한(怨恨)이 가득하고 팔도(八道) 각(各) 골 면면촌촌(面面村村)⁹⁴⁾ 국상(國喪)⁹⁵⁾이 발표되니 곡반(哭班)⁹⁶⁾ 참배(參拜) 소위 백관(百官)⁹⁷⁾ 예악(禮樂)⁹⁸⁾ 예절(禮節)이 분분(紛紛), 인산(因山)⁹⁹⁾ 위문(慰問)¹⁰⁰⁾을 허라고 구름같이 모아들 제 전조(前朝)¹⁰¹⁾ 제신(諸臣)¹⁰²⁾들은 대한문(大漢門)¹⁰³⁾ 너른 거리에 꺼적자리¹⁰⁴⁾에 베옷입고 곡반 통곡하며 “원통(冤痛)하오,

‘하늘에 퍼져 가득하되’의 뜻인 ‘창천(漲天)하되’ 또는 주야장천(晝夜長川)의 준말인 ‘장천(長川)’을 쓰는 ‘장천하되’로 볼 수도 있다.

81) 지옥[恥辱] : 치욕(恥辱, 수치와 모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

82) 추세(趨勢)하여 : 세력 있는 사람에게 불좋아서 따라.

83) 공훈(功勳) : 나라나 회사를 위하여 두드러지게 세운 공로.

84) 이완용(李完用) : 조선 고종 때의 친일파(1858~1926). 자는 경덕(敬德). 호는 일당(一堂). 1910년에 총리대신으로 정부의 전권 위원이 되어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는 등 민족을 반역하였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백작(伯爵)을 받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85) 송병준(宋秉畯) : 조선 고종 때의 친일 정치가(1858~1925). 이용구 등과 일진회를 조직하였고, 농상공부대신·내부대신을 지내면서 조선과 일본의 합방을 주장하였다.

86) 만고역적(萬古逆賊) : 세상에 비길 데 없이 괘씸한 역적.

87) 혁혁(奕奕)하여지되 : 매우 크고 아름다워 성(盛)하여지되.

88) 탕약(湯藥) : 달여서 마시는 한약.

89) 일지 : 일어나지.

90) 붕(崩)하신다 : 붕어(崩御)하신다. 임금께서 세상을 떠나신다.

91) 군부(君父) : 임금을 아버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92) 상사(喪事) : 사람이 죽은 사고.

93) 슬픈 : 사설에 따라, ‘높은’을 쓰기도 한다.

94) 면면촌촌(面面村村) : 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모든 곳.

95) 국상(國喪) : 국민 전체가 복상(服喪)을 하던 왕실의 초상. 태상왕(太上王), 상왕(上王), 왕, 왕세자, 왕세손 및 그 비(妃)의 상사(喪事)를 이른다.

96) 곡반(哭班) : 국상(國喪) 때 곡을 하던 벼슬아치의 반열.

97) 참배(參拜) 소위 백관(百官) : 참배하는 이른바 백관.

사설에 따라, ‘참배소(參拜所)의 백관(百官)’을 쓰기도 한다.

98) 예악(禮樂) : 예법과 음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99) 인산(因山) : 태상황, 황제, 황태자, 황태손과 그 비(妃)들의 장례. 또는 상왕, 왕, 왕세자, 왕세손과 그 비(妃)들의 장례.

100) 위문(慰問) : 위로하기 위하여 문안하거나 방문하다.

101) 전조 : 이전의 조정.

102) 제신(諸臣) : 여러 신하.

원통하오.” 애끓는 슬픈 울음¹⁰⁵⁾ 원한(怨恨)이 한데¹⁰⁶⁾ 뭉쳐 만호장안(萬戶長安)¹⁰⁷⁾의 백성들은 분기(憤氣)가 만면, 혈기(血氣) 방장(方壯)¹⁰⁸⁾ 청년 학도(學徒) 주먹이 불끈불끈 어깨가 으쓱으쓱¹⁰⁹⁾ 그저 장안은 수군수군 “여보 이게 웬일이오. 고종 황제께선 암만 생각하여도 간신의 피해를 받으셨지,¹¹⁰⁾ 이놈들 죽여야지.” 가가호호(家家戶戶) 거리거리 의견이 분분 일어날 제 각처(各處) 교실 내외선 무슨 비밀이 갔다 왔다¹¹¹⁾ 수선수선 무거운 침묵 속에 민족(民族) 자결(自決)을 응하여, 독립운동 시위 행렬 전국적으로 일어날 제 손병희(孫秉熙)¹¹²⁾ 씨 선두(先頭) 되고 여러 수반 의인들은 차서(次序)¹¹³⁾를 분별해야 태극기 선언서(宣言書)¹¹⁴⁾를¹¹⁵⁾ 만단(萬端)같이 준비한 후 삼월 일 일 열두 시¹¹⁶⁾에 거사(舉事)허자는 약속이라.

[아니리]

때는 2월 28일 민족(民族) 대표(代表) 서른세 명이 손병희(孫秉熙)¹¹⁶⁾ 씨 댁에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독립(獨立) 선언서(宣言書)에 서명(署名)을 헌 연후에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講和)¹¹⁷⁾의 각국 대표들에게 독립 선언서를 보내고 대의 날을 기다릴 제,

[자진머리]

때는 벌써 이월 그믐 밤이 적적 깊었난디 각처 수반 의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명일(明日) 거사 준비혈 제, 어느새 먼동이 희번 원산이 쪽긋쪽긋¹¹⁸⁾ 동녘에 해가 뜨니 삼월 일일이 오날¹¹⁹⁾이라. 파

103) 대한문(大漢門) : 덕수궁의 정문. 대한 제국 광무 원년(1897)에 고종이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1906년에는 정문인 대안문(大安門)을 이 이름으로 바꾸게 하였다.

104) 꺼적자리 : 거적자리.

105) 애끓는 슬픈 울음 : 사설에 따라, ‘애끓어 슬피 울어’ 등을 쓰기도 한다.

106) 한데 : 한곳이나 한군데. ‘함께’로 부르기도 한다.

107) 만호장안(萬戶長安) : 집이 아주 많은 서울.

108) 혈기(血氣) 방장(方壯) : 힘을 쓰고 활동하게 하는 원기가 왕성하다.

109) 으쓱으쓱 : 으쓱으쓱.

110) 받으셨지 : ‘당하셨지’나 ‘입으셨지’로 보기도 한다.

111) ‘왔다 갔다’로 부르기도 한다.

112) 차서(次序) : 차례의 순서

113) 선언서(宣言書) : 독립(獨立) 선언서(宣言書).

1919년 3·1 운동 때 한국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선언서. 최남선이 기초하고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하여 그해 3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 태화관(泰和館)에서 발표하였다.

114) 선언서(宣言書)를 : 사설에 따라, ‘서로서로’를 쓰기도 한다.

115) 열두 시 : 이 부분이 열두 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삼일 운동은 오후 두 시였다.

116) 손병희(孫秉熙) : 항일 독립운동가(1861~1922). 자는 응구(應九)·규동(奎東). 호는 의암(義菴). 1882년 천도교에 입교하여 1887년에 제3대 대도주(大道主)가 되었다. 3·1 운동 때는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

117) 파리 강화(講和) : 파리 강화(講和) 회의(會議). 1919년에 제일 차 세계 대전의 종결을 위하여 승전국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강화 회의. 미국·영국·프랑스의 3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오스트리아와 생제르맹 조약을, 불가리아와 뇌이 조약을, 헝가리와 트리아농 조약을, 튀르키예와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였다.

118) 쪽긋쪽긋 : 입이나 귀 따위를 꽂꽂하고 크게 세우거나 빼죽하게 내미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119) 오날 : 오늘. ‘오늘날’은 ‘오늘날’의 전라 방언.

고다 공원 앞으로서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약속시간 기다릴 제 벌써¹²⁰⁾ 열두 시 정각을 땅땅. 선언이 끝이 나자 태극기 번뜩 북악산(北岳山)¹²¹⁾이 우루루루루 “대한 독립 만세 만세!”¹²²⁾ 장안(長安)¹²³⁾이 으근으근 으근 남산(南山)이 뒤끓어 삼각산(三角山)¹²⁴⁾이 떠나갈 듯 의분(義憤) 기창¹²⁵⁾ 청년 학도 솟을 듯이 나아갈 제 어디서 총소리 쾅 칼날이 번뜩,¹²⁶⁾ 쓰러지는 우리 동포 죽어가면서도 독립만세. 산지사방(散地四方)¹²⁷⁾ 만세(萬歲) 소리 연속하여 일어나고 포악무도(暴惡無道)¹²⁸⁾ 일본 현병(憲兵) 거리거리 길을 막고 함부로 난타하야 총으로 쏘고 칼로 쳐서 선(先)머리¹²⁹⁾ 턱턱 쓰러져도 그저 물밀듯이¹³⁰⁾ 피 끓는 청년들은 주먹 쥐고 우루루루루, 왜놈들 냅다질 꺼꾸러 쳐 좌우에 총소리 쾅 쾅. 슬프구나 어흐 어 우리나라 당당한 의무련마는 무도(武道)한 왜놈들은 함부로 총을 쏘니 주검이 여기저기 수라장이 되었구나.

[아니리]

이렇듯 수라장 속에 몇몇 학생들이 빠져나와 이화 학당으로 돌아오니 그때여 교장 프레이(Frey)¹³¹⁾ 미국 선생이 창백한 얼굴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학생들을 반기하며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준 것이 무엇보다 하느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은 아주 장한 일들을 하였소. 일본은 언젠가는 큰 별을 받을 것이오.” 한참 이럴 즘¹³²⁾에 일본 현병들이 들이닥쳐 독립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찾아내라고 독촉을 하는 한편 총독부(總督府)¹³³⁾에서는 각 학교 임시 휴학의 명령을 내렸겠다. 관순이도 하릴없이 저의 고향으로 내려가는디,¹³⁴⁾

120) 벌써 : ‘어느새’로 보기도 한다.

121) 북악산(北岳山) : 서울의 경복궁 북쪽에 있는 산. 서울 분지를 둘러싸는 자연 요새의 하나로 기반암은 화강암이며, 이 산을 중심으로 서울 북쪽의 성벽이 축조되었다.

122) 만세 : ‘만세 만세’로 부르기도 한다.

123) 장안(長安) : 수도라는 뜻으로, ‘서울’을 이르는 말.

124) 삼각산(三角山) : ‘북한산’의 다른 이름.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있어 이렇게 부른다.

125) 기창 : 미상(未詳).

‘복받치다’ 정도의 뜻으로, ‘기창(氣脹)’을 쓴 듯하다. ‘기창(氣脹)’은, 기가 정체되어서 복부가 더부룩하게 불러 오는 증상. 대개 간이나 지라 기능의 장애로 생긴다.

126) 총소리 쾅 칼날이 번뜩 : 사설에 따라, ‘총소리 쾅 쾅’을 쓰기도 한다.

127) 산지사방(散之四方) : 사방으로 흩어지다. 또는 흩어져 있는 각 방향.

128) 포악무도(暴惡無道) : 법도 도리도 없이 포악하다는 뜻으로, 사납고 악착하기가 이를 테 없음을 이르는 말.

129) 선(先)머리 : 행렬의 앞부분.

130) ‘그저 물밀듯이’를 빼고 부르기도 한다.

131) 프레이 : 룰루 프라이(Lulu E. Frey, 1868~1921). 이화 학당 제4대 당장(堂長).

132) 즘 : ‘즈음’의 준말.

133) 총독부(總督府) :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최고 행정 기관. 총독이 이곳에서 정무를 맡아본다.

134) 관순이도 하릴없이 저의 고향으로 내려가는디 : 사설에 따라, ‘관순이’ 분이 나서 충남을 선동코 저의 고향으로 내려가는디’를 쓰기도 한다.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이자 유관순 열사의 사촌 언니인 유예도(柳禮道, 1896~1989)의 증언에 따르면, 독립운동 자금 모금의 사명을 받았었다고 한다. 『3·1운동의 열 유관순』(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기획, 이정은 지음, 역사공간, 2010) 126쪽 참고.

한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친구들이 기차 소리를 듣고 ‘동전 한 푼 동전 한 푼’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하자, 유관순은 ‘대한 독립 대한 독립’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같은 책, 122쪽 참고.

[중모리]

그날 즉시 길을 떠나 구 목천 지령리 자체 없이 내려와서 부모님께 아뢴 후에 근동 사람 모두 모아 선언서를 발표한 후 우리는 때가 왔으니 앞을 서서 나갑시다. 모인 중 조인원(趙仁元)¹³⁵⁾이 주먹을 들고 일어나고 관순은 각처 연락 곤(困)한 줄도 모르고 천안읍 김구응(金球應)¹³⁶⁾을 찾으니 이 또한 동지라. 여러 학교를 충동(衝動)하고¹³⁷⁾ 청주(淸州) 진천(鎭川) 유림(儒林)¹³⁸⁾ 대표 모두 찾어 약속한 후 면면촌촌(面面村村)¹³⁹⁾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訪問)하여 부인들을 충동하느라 주야배도(晝夜倍道)하는구나.¹⁴⁰⁾

[아니리]

이렇듯 활동혈 제 이러한 결과로 동지들을 얻어 음력(陰曆) 삼월 일 일로 정하고 관순은 그날 밤 매봉산에 올라가 봉화(烽火)¹⁴¹⁾를 놓아 군호(軍號)를 올린 후에 훌연히 앓아 자탄을 허는다,

[진양조]

“적적히 훌로 앓어 오늘 일을 생각하니 무인공산(無人空山)¹⁴²⁾에 밤이 이미 깊었난디 밤새소리는 부웅부웅 바람은 나뭇가지를 썹 스쳐간다. 물나니 청산이여 고국(故國) 흥망(興亡)을 뉘랴 알리로다. 반만년 우리 역사 일조일석에 무너지고 갖은 지옥[恥辱] 십 년간에 호소할 곳이 바이 없이 명일 대의를 잡아 일어나니 천지신명(天地神明)¹⁴³⁾은 살피소서.” 이리 앓어 자탄을 허되 무심한 청산은 아무 대답이 없고 서천(西天)¹⁴⁴⁾ 하늘에 별빛만 기울어졌네. 아이고 원통하여라 구곡간장 장탄으로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리]

이렇듯이 자탄을 혈 제 먼촌에 개 짖는 소리 들릴 적에

[자진머리]

날이 차차 밝아지니 음력 삼월 첫날이라 아우내장 네거리에 십육 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다 끼고 왔다갔다 수천 명 군중들은 연속하여 모여들고, 한편 지령리[질(길) 어귀]¹⁴⁵⁾에서 태극기 서로서로¹⁴⁶⁾

135) 조인원(趙仁元) : 조인원(1875~1950)은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이다.

136) 김구응(金球應) : 김구응(1887~?)은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이다.

137) 충동(衝動)하고 : 어떤 일을 하도록 남을 부추기거나 심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고.

138) 유림(儒林) : 유학을 신봉하는 무리.

139) 면면촌촌(面面村村) : 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모든 곳.

140) 주야배도(晝夜倍道)하는구나 :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 갑절의 길을 걷는구나.

141) 봉화(烽火) : 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 불. 전국의 주요 산정(山頂)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토끼 똥을 태운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를 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올리는 횟수가 달랐다.

142) 무인공산(無人空山) : 사람이 살지 않는 산.

143) 천지신명(天地神明) : 천지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144) 서천(西天) : 서쪽 하늘.

145) 지령리[질(길) 어귀] : 질('길'의 강원, 경기, 경남, 충청 방언) 어귀.

일제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죄목을 염두에 둔 듯하기 때문이다. “김 교선, 한 동규, 이 백하, 이 순구는 홍 일신과

조용조용히 나누어 줄 제, 어느새 정오[오후 한]¹⁴⁷⁾ 시라. 유관순¹⁴⁸⁾이 높이 서서 선언서를 낭독한다. 반만년(半萬年) 우리 역사 왜놈들게 무고히 뺏긴 십 년에 민족(民族) 자결(自決)¹⁴⁹⁾을 응해야 독립운동 시위 행렬 허자는 선언이 끝이 나자 태극기 높이 들어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천지가 뒤덮는 듯 강산이 뒤끓어 매봉산이 떠나갈 듯 수천 명 군중들은 시위 행렬 전진(前進)할 제 어디서 총소리 쾅 김구응 꺼꾸러지니 관중은 더욱이 열이 복받쳐¹⁵⁰⁾ “이놈아 이놈아 개 같은 놈들아 총은 너희가 왜 쏘느냐 저놈들 죽여라.” 우우우 달려들어 파견소 문짝을 후닥닥 지끈 와지끈 때려 부수니 왜놈이 겁내어 담 너머로 도망가고 어디서 자동차 소리가 우루루루루루루루 천안 현병 본부에서 응원대 쫓아들오며¹⁵¹⁾ 총소리 쾅 쾅¹⁵²⁾ 유중권 내외가 꺼꾸러지고 조인원이 쓰러지니 관순이 눈이 캄캄 우루루루루루루루 달려들다 칼날이 번뜩 또 쓰러지니 관순이 기가 막혀,

[자진중증모리]

“허허, 이것이 웬일이냐? 야 이 몹쓸 왜놈들아 우리 민족 빈손으로 독립하자 허였거늘 무삼¹⁵³⁾ 일로 총을 쏘아 이 모양이 웬일이냐. 섰다 꺼꾸러져 때그르르 궁굴어¹⁵⁴⁾ 보고 가슴을 쾅쾅 머리도 지끈 지끈 부모님 시체를 안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천추 원한 품으시고 영결종천(永訣終天)하셨으니,¹⁵⁵⁾ 장엄한 이 죽음은 국민 의무가 당연하나 철천지(徹天之) 맷힌 한을 어느 때나 풀으리까. 예끼 천하 몹쓸 놈들 금수(禽獸)만도 못하구나, 포악무도(暴惡無道)¹⁵⁶⁾ 기장구(豈長久)하리야.¹⁵⁷⁾ 나도 마저 죽여라.” 우루루루루

[아니리]

달려들다 현병 발길에 건듯 채여¹⁵⁸⁾ 꺼꾸러졌겼다. 관순이 분한 마음에 부모님 시체를 안고 죽기로

함께 …… 시장의 출입구에 지켜 서서 …… 조선 독립 만세를 함께 부르도록 권유”(이정은, 『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이문원, 2004, 476~477쪽)했다고 한다.

146) 서로서로 : ‘선언서(宣言書)를’의 변형이다.

147) 정오[오후 한] : 오후 한.

음력 3월 1일 이 시위 시간은 오후 1시다. 같은 책, 478쪽 참고.

148) 유관순 : ‘조인원(趙仁元)’의 변형이다. 『3·1운동의 얼 유관순』(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기획, 이정은 지음, 역사 공간, 2010) 140쪽 참고.

149) 민족(民族) 자결(自決) :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

여기서는, 민족(民族) 자결주의(自決主義). 민족 자결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사상. 1918년에 미국의 월슨 대통령이 제창하고 파리 평화 회의에서 채택되어 식민지 국가의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50) 복받쳐 : 감정이나 힘 따위가 속에서 조금 세차게 치밀어 올라.

151) 들오며 : 들어오며. ‘들오다’는 ‘들어오다’의 준말.

152) 총소리 쾅 쾅 : ‘좌우에 총소리 쾅 쾅’으로 부르기도 한다.

153) 무삼 : 무슨.

154) 궁굴어 : 텅굴어.

155) 영결종천(永訣終天)하셨으니 :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셨으니.

156) 포악무도(暴惡無道) : 법도 도리도 없이 포악하다는 뜻으로, 사납고 악착하기가 이를 데 없음을 이르는 말.

157) 기장구(豈長久)하리야 : 어찌 장구(長久)하랴. 어찌 매우 길고 오래랴.

‘리야’는, ‘랴’의 옛말.

158) 건뜻 채여 : 갑작스럽게 채여. ‘걷어 채여’로 아니리를 하기도 한다.

작정허니 그 때 마침 우리 동지 하나가 관순을 피신(避身)시켜 놓으니, 관순이 거기서 빠져나와 저의 집으로 돌아와 관복(寛福)¹⁵⁹⁾과 관석(寛錫)¹⁶⁰⁾ 두 동생을 만난 후에 현병들에게 발각되어 여러 동지들과 하릴없이 끌려가는디,

[늦은증모리]

붙들리어 가는구나, 끌리는 포승줄은 앞뒤로 얹어매고 손에는 수갑이라. 흐트러진 머리채는 두 귀 밑에 늘어지고 피와 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에 모두 다 사무친다. 아우내 장터 사람들은 모두 나와 울음을 울고 세상을 모르고 누워있는 여러 동지 부모 양친(兩親)은 고요히 잠이 들어 아무런 줄을 모르는구나. 관순이 망극(罔極)하여,¹⁶¹⁾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여식 관순이는 사세부득 끌려가오니 죄를 용서하옵소서.” 애끓어 슬피 우니 흘린 눈물 비가 되고 한숨은 모아서 청풍(淸風)¹⁶²⁾이라. 청산도 느끼난 듯 관순은 오열(鳴咽)하여¹⁶³⁾ 휘늘어져 곱든 꽃은 이울어져¹⁶⁴⁾ 빛을 잃고 뜻밖의 두견(杜鵑)이¹⁶⁵⁾는 피를 내어 슬피 울어 야월(夜月)¹⁶⁶⁾ 공산(空山)¹⁶⁷⁾ 옅다 두고 진정제송단장성(盡情啼送斷腸聲)¹⁶⁸⁾ 촉국(蜀國)¹⁶⁹⁾ 한(恨)¹⁷⁰⁾이 깊었으니, 니 아무리 미물이나 사정은 날과 같이 천추(千秋) 원한 운다마는 사세(事勢)가 부득이(不得已) 되니 수원수구(誰怨誰咎)를 어이 허리. 이렇닷이 울음을 울 제표독(標毒)한 일본 현병 성화(星火)같이¹⁷¹⁾ 재촉한다. 백여 명 동지들은 칼 맞어 팔 못 쓰는 사람, 총을 맞고 다리 절어 전동전동거리고¹⁷²⁾ 끌려간다. 의분은 창천(蒼天)¹⁷³⁾에 닿아 있고 슬픔은 산하(山河)에 찼다. 어느새 일모도궁(日暮途窮)¹⁷⁴⁾하여 박모(薄暮)¹⁷⁵⁾에 들어설 제 천안읍을 당도터니 이곳은 현병본부이니라. 위엄이 늄름 살기가 일어나고 의기가 만면허여 호령이 추상같은지라, 관순은 노려보며 태연히 들어간다.

[아니리]

159) 관복(寛福) : 유관복(柳寛福). 유관순 열사의 동생. 이름은 인석(仁錫)이고 관복(寛福)은 자이다.

160) 관석(寛錫) : 유관석(柳寛錫). 유관순 열사의 막냇동생이다.

161) 망극(罔極)하여 : 임금이나 아버이의 은혜가 한이 없어.

162) 청풍(淸風) : 맑은 바람.

163) 오열(鳴咽)하여 : 목메어 울어.

164) 이울어져 : 꽃이나 잎이 시들어져.

165) 두견(杜鵑)이 : 두견과의 새. 편 날개의 길이는 15~17cm, 꽁지는 12~15cm, 부리는 2cm 정도이다. 등은 회갈색이고 배는 어두운 푸른빛이 나는 흰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다. 여름새로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휘파람새의 둑지에 알을 낳아, 휘파람새가 새끼를 키우게 한다.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166) 야월(夜月) : 밤을 환히 밝히는 달.

167) 공산(空山) : 사람이 없는 산중.

168) 진정제송단장성(盡情啼送斷腸聲) : 진정으로 애끓는 울음소리로 울며 보내다.

169) 촉국(蜀國) : 촉(蜀)나라.

170) 한(恨) : 촉(蜀)나라 망제(望帝)의 한. 중국 촉(蜀)나라 사람인 망제(望帝)의 죽은 넋이 두견이 되었다고 한다.

171) 성화(星火)같이 : 남에게 해 대는 독촉 따위가 몹시 급하고 심하게.

172) 전동전동거리고 : 절뚝절뚝거리고.

173) 창천(蒼天) : 맑고 푸른 하늘.

174) 일모도궁(日暮途窮) :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막힌 상태이다.

175) 박모(薄暮) :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

그때여 현병 대장이 관순의 목에 총을 딱 대고, “너 이년, 조그만헌 년으로 이런 범란(汎瀾)한¹⁷⁶⁾ 짓을 할 리가 없고 반드시 네 뒤에는 지도자(指導者)가 있을 터이니, 지도자가 누구인지 바른대로 말하여라. 그러면은 니 목숨만은 살려주마.”

[단중모리]

“이놈아 니 나를 어찌 보느냐 내 나이 십육 세라 오천 년 배달민족(民族)¹⁷⁷⁾ 우리 한국 처녀여든 죽는 것을 두려해야 개와 같은 네놈 앞에 살기를 구할쏘냐. 총으로 쏘든 칼로 치든지 양단간(兩端間)에 하려무나. 나 죽은 혼이라도 너희 나라 혼비중천(魂飛中天)¹⁷⁸⁾ 떠다니며 너희들을 몰살(沒殺)시켜 원한을 풀어 보리라. 아나 이놈아 나를 썩 죽여라.” 앞니를 와드득 와드득 두 주먹 벌벌 떨며 “선도자(先導者)¹⁷⁹⁾는 내로다. 무도한 왜놈들아 어서 급히 죽이어라.”

[아니리]

이렇듯 포악(暴惡)을 해노니 현병 대장 어이없어 관순을 다시 결박(結縛)하여¹⁸⁰⁾ 공주(公州) 검사국(檢事局)¹⁸¹⁾으로 넘겼었다. 그때여 관옥(寛玉)¹⁸²⁾이도 시위 행렬하다 불들려 들어와 그곳에 신문(訊問)¹⁸³⁾을 받으러 왔다 형제 만나게 되었구나.

[창조]

관순이 기가 막혀,¹⁸⁴⁾

[중모리]

섰다 절컥 벼썩 주잖더니¹⁸⁵⁾ “아이고 원통하여라 원통하네. 나라 없는 외로운 몸이 부모까지 이별하고 형제는 각기 감금되니 어린 동생들을 어이하리. 아이고 이 일을 어찌를 헐그나.” 복통(腹痛) 단장성(斷腸聲)¹⁸⁶⁾으로 울음 우니 그때여 관옥이는 아무런 줄을 모르다, “이 애 관순아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오라버니 아우내 장터 행렬 시에 양친이 다 돌아가셨소.” “무엇 어째.” 관옥이 정신 상망(喪亡)하여¹⁸⁷⁾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꺼지난 듯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못 하고, 두 눈에 눈물이 든

176) 범란(汎瀾)한 : 범람(汎濫/氾濫)한. 제 분수에 넘친.

177) 배달민족(民族) : 우리 민족을 이르는 말.

178) 혼비중천(魂飛中天) : 죽은 사람의 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다.

179) 선도자(先導者) :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

180) 이렇듯 포악을 해노니 현병대장 어이없어 관순을 다시 결박(結縛)하여 : 사설에 따라, ‘현병대장이 벌벌벌벌벌벌 떨면서’를 쓰기도 한다.

181) 검사국(檢事局) : 일제 강점기에, 검사가 일을 보던 곳. 대개 재판소에 부속 설치되었다.

182) 관옥(寛玉) : 유관옥(柳寬玉). 유관옥(1899~1968)은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이자 유관순 열사의 오빠이다. 이름은 우석(愚錫)이다.

183) 신문(訊問) :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184) 관순이 기가 막쳐 : 사설에 따라, ‘관순이 눈이 캄캄하여’를 쓰기도 한다.

185) 주잖더니 : 주저앉더니.

186) 단장성(斷腸聲) :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

187) 상망(喪亡)하여 : 상망(喪亡)하여. 망하여 없어지다. 또는 잃어버리다.

거니 맷거니 그저 퍼버리고 울음을 운다.

[아니리]

이렇듯 두 형제 붙들고 울음 우니 악독(惡毒)한 일본 현병들이 달려들어 두 형제를 떠여 각각 감옥(監獄)으로 끌고 가는다.

[중중모리]

그때여 관순이는 검사국에 신문 받고 백여 명 동지들과 옥으로 나려갈 제 악독한 일본 현병 총칼을 매고 새이새이 끼어 서 감금이 엄숙하여 공주교(公州橋)를 얼풋¹⁸⁸⁾ 지나 좌우를 둘러보니 남녀노소 수십 명이 거리거리 늘어서서 혀도 차고 눈물 흘려 장하다고 탄식(歎息)한다. 그곳을 지나 감옥 앞을 당도하니 간수(看守)는 문을 열어 죄수(罪囚)를 받고 서류를 모아 명록 대신 번호를 써서 앞섶에다가 붙여 각기 분방(分房)을 시킬 제 그때여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각처(各處)에 벌어져 시위 행렬이 연속이라. 포악무도 일본 현병 총으로 쏘고 칼로 쳐서 함부로 얹어 묶어 끌어갈 제 분함 하늘에가 사무치고 장엄한 그 죽임¹⁸⁹⁾은 도처마다 물을 들여 흘린 피로 물들으니 아름다운 애국 정열 장하고도 씩씩 허다.

[아니리]

이때여 우리 동포들 각처에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붙들리어 들어와 모진 고문(拷問)¹⁹⁰⁾과 악형(惡刑)으로 죽어가는 동지들이 수도 없이 많은지라. 관순도 또한 공주 검사국에 불복(不服)하고¹⁹¹⁾ 경성(京城)¹⁹²⁾ 복심(覆審) 법원(法院)¹⁹³⁾에 상소(上訴)¹⁹⁴⁾를 허였는디, 이리하여 경성 복심법원으로 옮겨지니 관순이는 서대문(西大門) 미결(未決)¹⁹⁵⁾ 감옥에 처하는지라. 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관순이 재판(裁判) 날이 돌아왔는디,

[진양조]

위엄(威嚴)이 늄름하다. 예복(禮服)을 입은 일본 검·판사는 층계(層階) 위에 높이 앉았으니 교만(驕慢)과 살기(殺氣)가 만면(滿面)이라. 좌우편의 변호사(辯護士)는 우리 동포 죄를 감소(減少)시키려고 법률(法律) 책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니 이는 선인(善人)이 분명하고 모아 앉은 방청객(傍聽客)은 겹겹이 모두 늘어앉어 체형(體刑)¹⁹⁶⁾ 언도(言渡)¹⁹⁷⁾를 볼 양으로 담담하니 앉었구나.

188) 얼풋 : ‘얼른’의 경상 방언.

189) 죽임 : 죽음.

190) 고문(拷問) :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하다.

191) 불복(不服)하고 : 불복(不服)하고. 남의 명령·결정 따위에 대하여 복종·항복·복죄(服罪) 따위를 하지 아니하고.

192) 경성(京城) : ‘서울’의 전 이름. 1910년에 일본이 침략하면서 한성(漢城)을 고친 것이다.

193) 복심(覆審) 법원(法院) : 일제 강점기에, 지방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에 대하여 재판을 행하던 곳. 고등 법원보다는 아래이고 지방 법원보다는 위에 해당하는 재판소로 서울, 평양, 대구에 있었다.

194) 상소(上訴)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195) 미결(未決) :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196) 체형(體刑) : 징역이나 금고 따위,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197) 언도(言渡) :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아니리]

그때여 검사가 의기가 양양하게 관순을 쏘아 보며, “네 이년 너는 죄인의 몸으로서 감방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그 또한 큰 죄이려니와 대(大) 일본국(日本國) 천황(天皇)¹⁹⁸⁾ 폐하(陛下)를 무시한 죄 더더욱 큰 죄로다.” 관순이 듣고 문답허되, “너희들에게는 천황 폐하로되 나에게는 대(大)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讐)¹⁹⁹⁾로다.” “저런 저런 저런 발칙한 년. 네 이년 네 죄를 생각하면 당장에 이 자리에서 처형할 일이로되 너 아직 어린 고로 징역 칠 년을 구형(求刑)²⁰⁰⁾하노라.”²⁰¹⁾

[엇머리]

관순이 분기충천(憤氣衝天)하야,²⁰²⁾ “이놈 무엇이 어째여, 우리 민족 빈손으로 독립하자 허였거늘 무 삼 일로 총살(銃殺)하고 감금(監禁) 수옥(囚獄)²⁰³⁾ 헌단 말이 네 입에서 나오느냐.” 앉았던 의자 번쩍 들어 우²⁰⁴⁾에를 보고 냅다 치니 의분은 충천 법정은 뒤죽박죽이 되야 검·판사 넋을 잃고 좌우 간수들도 어찌할 줄 모를 적에 모아 앉은 방청객은 의분이 복받치어서 주먹만 벌벌 떨고 무슨 말이 나올 듯 입만 딸싹딸싹.

[아니리]

하마터라면 여기서도 큰일 날 뻔하였던가 보더라. 이리하여 관순을 다시 결박하여 감옥으로 끌고 가는다.

[창조]

그때여 관순이 적막(寂寥) 옥방(獄房) 홀로 앉아 옥창(獄窓) 밖을 내다보니 만리장공(萬里長空)²⁰⁵⁾에 구름만 담담하고 흐트러진 나라 근심과 원통하게 돌아가신 부모 양친과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니 추연(惆然)히²⁰⁶⁾ 눈물을 흘리며,

[진양조]

“내 죄(罪)가 무삼 짚고 부모불효 하였느냐? 살인강도(殺人強盜)²⁰⁷⁾ 헌 일 없이 음양(陰陽)²⁰⁸⁾ 작죄

198) 천황(天皇) : 일본에서, 그 왕을 이르는 말.

199)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讐) :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맷하게 한 원수.

200) 구형(求刑)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결국, 경성 복심법원은 1919년 6월 30일에 유관순 열사에게 3년 형을 선고한다. 참고로, 1심에서 공주 지방법원은 1919년 5월 9일 유관순 열사에게 5년 형을 선고했다.

「유관순 열사 1심 형량 관계 「형사사건부」 소개」(임명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집, 2007) 등을 참고했다.

201) 구형(求刑)하노라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요구하노라.

202) 분기충천(憤氣衝天)하야 :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복받쳐 올라.

203) 수옥(囚獄) :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한때 형무소라고 부르다가 현재 ‘교도소’로 고쳤다.

204) 우 : 위.

205) 만리장공 : 멀고면 하늘.

206) 추연(惆然)히 : 처량하고 슬프게.

207) 살인강도(殺人強盜) :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둑.

(作罪)²⁰⁹⁾ 아니어든²¹⁰⁾ 감금 수옥이 웬일이냐. 죄가 있고 이럴진대 아무 여한(餘恨)이 없으련마는 나라 없는 민족이 제 나라 찾자는 게 그게 무슨 죄란 말이냐. 당당한 의무련마는 세사(世事)가 모두 이렇던가. 아이고 원통하여라 이제 내가 죽어져서 외로운 혼백(魂魄)이 만리(萬里) 장공(長空)에 흩어지고 만수 청산에 일분토[一抔土]²¹¹⁾가 되면 만사(萬事)를 모두 잊으련마는 무엇을 바래고 내 여태 살아 있어 이 모양을 당하는구나. 옛날 고려(高麗) 포은(圃隱)²¹²⁾ 선생은 나라 위하여 죽어 있고 단종(端宗)²¹³⁾ 때 성삼문(成三問)²¹⁴⁾ 씨 독야청청(獨也青青)²¹⁵⁾ 절(節)을 지켜 충직지(忠直旨)²¹⁶⁾ 임명하니²¹⁷⁾ 군신유의(君臣有義) 중(重)한지고. 진주(晉州) 논개(論介)²¹⁸⁾ 평양(平壤) 계월[계월향(桂月香)]²¹⁹⁾ 나라에 몸을 바쳐 대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또한 사람이라 고인만은 못해여도 인신지본의²²⁰⁾를 왜 모르랴. 이제 내가 죽는 것은 삶잖으나²²¹⁾ 사후(死後) 영결(永訣)허신²²²⁾ 부모님 초상(初喪) 장례(葬禮)를 뉘²²³⁾ 했으며 철모르는 어린 동생들은 뉘²²⁴⁾ 집에서 자라날꼬. 분하고 내가 원통한 사정을 어느 으 누²²⁵⁾게다가 하소²²⁶⁾를 허리.”

[아니리]

이렇듯 슬피 울다 의분이 복받치어 옥창문(獄窓門)²²⁷⁾을 두다리며 독립 만세를 삼창(三唱)으로 부르난

208) 음양(陰陽) : 남녀의 성(性)에 관한 이치.

209) 작죄(作罪) : 죄를 짓다. 또는 그 죄.

210) 아니어든 : ‘아니거든’의 옛말.

211) 일분토[一抔土] : 일부토(一抔土). 한 숨의 흙이라는 뜻으로, ‘무덤’을 이르는 말.

212) 포은(圃隱) : ‘정몽주’의 호.

213) 단종(端宗) : 조선 제6대 왕(1441~1457).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숙부인 수양 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겨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죽은 지 241년 뒤인 숙종 24년(1698)에 왕위를 추복(追復)하여 묘호를 단종이라고 하였다. 재위 기간은 1452~1455년이다.

214) 성삼문(成三問) : 조선 세종 때의 문신(1418~1456).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세조 2년(1456)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되었다. 저서에 《성근보집(成謹甫集)》이 있다.

215) 독야청청(獨也青青) :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6) 충직지(忠直旨) : ‘충직(忠直)한 승지(承旨)’라는 뜻인 듯하다.

217) 임명하니 : ‘임명하여’로 부르기도 한다.

218) 논개(論介) : 조선 선조 때의 의기(義妓)(?~1593). 진주의 관기(官妓)로,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이 함락되자 촉석루의 술자리에서 당시 왜장(倭將)이었던 게야무라 후미스케(毛谷村文助)를 껴안고 남강에 떨어져 죽었다.

219) 계월[계월향(桂月香)] : 계월향(桂月香). 조선 시대의 기생(?~1592). 임진왜란 때 적장(敵將)을 유인하여 김응서(金應瑞)로 하여금 목을 베게 한 후 자결하였다.

220) 인신지본의 : 인신지본의(人臣之本義, 신하에게 있어 근본이 되는 뜻과 가치).

‘인신지분야(人臣之分也, 신하의 도리라)’의 변형인 듯하다.

221) 삶잖으나 : 삶지 않으나.

222) 영결(永訣)허신 : 영결(永訣)하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지신.

223) 뉘 : ‘누가’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224) 뉘 : ‘누구의’가 줄어든 말.

225) 누 : ‘누구’의 강원, 경상 방언.

226) 하소 :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따위를 말하다.

디,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이렇듯 냅다 질러 놓으니, 그때여 우리나라 동지들이 수도 없이 불들려 들어와 각각 감방에 감금되었는지라. 관순이 외치는 소리에 여기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같이 합창으로 불러노니 감옥 안이 발끈 뒤집혔던가 보더라. 황급한 간수들은 관순을 잡아 끌어내어 다시 신문을 하는디,²²⁸⁾

[중모리]

좌우에 일본 간수들은²²⁹⁾ 관순을 잡아내고 전옥(典獄)²³⁰⁾ 이하 간수장(看守長)²³¹⁾들은 일제히 늘어앉아 추상같이 호령을 한다. “어 이년 너는 일국(一國)의 백성(百姓)이 되어 국법(國法)을 무시(無視)하느냐?” “미친 도적(盜賊)놈들 말 들어라. 당초에 너희 놈들이 보호조약을 억지(抑止)하여[勒]²³²⁾ 위협적 침략 정책 우리나라를 짓밟아 뺏고도 무삼 면목에 낮을 들어 그런 말을 허느냐?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너희 법을 부인하노라.” “허허 그년 당돌하다. 니가 어찌 당초 근본을 알겠느냐. 내 자세히 일러주지.” “무엇, 근본? 흥 어디 말해봐라.” “너희 나라에 당파(黨派)가 있어 보전할 길이 없는 고로 우리 병력을 다하여서 일청(日清) 일로(日露) 전쟁함이 그게 모두 너희를 위함이라.” “오 그 일로 말 할진대²³³⁾ 너희 놈들이 간흉(奸凶)하여²³⁴⁾ 우리나라를 도적(盜賊)하자²³⁵⁾ 근본이니 그건 더욱 흉측(凶測)하자.” “무엇 어째. 이년 또 들어봐라. 너희 군신이 합배²³⁶⁾ 하여 보호를 부탁하였고 합병(合併)²³⁷⁾을 하자는 것도 그게 모두 너희를 위함이라.” “어허 어찌여 뻔뻔허구나 왜놈들아. 그것은 너희 놈들이 우리나라 역적(逆賊)들과 공모하여 너희들 맘대로 허였으니 우리 의사 안중근(安重根)²³⁸⁾ 씨 이등박문(伊藤博文)²³⁹⁾을 죽인 후로 여순(旅順)²⁴⁰⁾ 감옥에서 사(死)하시고²⁴¹⁾ 이준(李儂)²⁴²⁾ 선생은 배

227) 옥창문(獄窓門) : 옥창(獄窓). 감옥의 창.

228) 황급한 간수들은 관순을 잡아 끌어내어 다시 신문을 하는디 : 사설에 따라, ‘이리하여 관순을 다시 결박하여 검사실로 끌고 가는디’를 쓰기도 한다.

참고로,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의 삼일 운동 1주년 옥중 만세 시위와 이후의 고문을 염두에 둔 대목이다.

229) 간수들은 : ‘검·판사는’으로 부르기도 한다.

230) 전옥(典獄) : 교도소의 우두머리.

231) 간수장(看守長) : ‘교감4(矯監)’의 이전 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간수장’ 항목 (ko.dict.naver.com/#/entry/koko/5ab3b5eb6d874f7b937401f34ce80d88) 참고.

232) 억지(抑止)하여[勒] : 늑(勒, 억제하다). 늑약(勒約, 억지로 맺은 조약).

233) -르진대 : (예스러운 표현으로) 앞 절의 일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뒤 절 일의 조건이나 이유, 근거로 삼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장중한 어감을 띤다.

234) 간흉하여 : 간특하고 흉악하여.

235) 도적(盜賊)하자 : 도적(盜賊)하자.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자.

236) 합배 : ‘함께 배알(拜謁)하다’라는 뜻인 듯하다.

237) 합병(合併) : 둘 이상의 기구나 단체, 나라 따위가 하나로 합쳐지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238) 안중근(安重根) : 독립운동가(1879~1910). 남포에 돈의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힘쓰다가 1907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의병 운동에 참가하고, 1909년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239) 이등박문(伊藤博文) : 이토 히로부미.

240) 여순(旅順) : 뤄순.

241) 사(死)하시고 : 사(死)하시고. ‘돌아가시고’를 한문 투로 이르는 말.

242) 이준(李儂) : 조선 고종 때의 대신(1859~1907). 자는 순칠(舜七). 호는 일성(一醒)·해사(海史)·청하(青霞)·해옥(海玉). 독립 협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으며, 일본의 황무지 개척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 보안회, 공지회 등을 조직하

를 갈라 만국회(萬國會)243)에다 피를 뿌려 세계 만국 경탄(驚歎/驚嘆)이요, 우리 동포(同胞) 흘린 피는 도처(到處)마다 물을 들여 천추(千秋) 원한 맷힌 한을 너희도 응당(應當) 알 것이다. 쥐와 같이 간사한 놈들 포악무도 일삼으니 아니 망(亡)하고는 안 되지야.” “에잇 그년 천하(天下)에 독(毒)한 년이로다. 당장(當場)에 말 못 허게 치려무나.” 때리고 달고 치고 물을 퍼 씌어놔도 꼼짝달싹 않고 더욱 정신이 씩씩하여지며 “얻다244) 이 흉폭한245) 왜놈들아 너희가 나를 짹짜 찢어 육장(肉醬)246)을 만들든지 동동이 가르든지 너희들 맘대로 하려니와 나의 굳은 마음은 못 뺏지야.247) 옛글에 이르기를 적국지수(敵國之首)는 아국지수(我國之讐)요 아국지수(我國之首)는 적국지수(敵國之讐)248)라. 너희 놈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흉폭한 너희 목적이요, 나는 이 자리 죽난 건 당당한 나의 의무라 헐 것이니 당장에 목숨을 끊으려무나.” “에잇 그년 천하에 독한 년이로다.” 화덕에다가 불을 피워 쇠끌이에다 불을 붉게 달아서²⁴⁹⁾ 살을 풀풀 찌르니 기름이 끓고 살이 타져도 꼼짝달싹 않고 여전히 포악을 허는구나. “에잇 그년 단칼에 쳐 죽여라.” 칼로 찌르고, 살을 점점 해쳐노니, 아깝구나 우리 관순 악형을 못이기어 죽어가면서도 포악(暴惡)250)이라. 입만 딸싹딸싹 천추 원한 품에 품고 아주 깜박 명(命) 진(盡) 허니²⁵¹⁾ 피는 흘러 땅에 그득하고 피육(皮肉)252)은 점점 흘어졌네. 장하구나 순국처녀 몸은 죽탕²⁵³⁾이 되었으되 의혈(義血)254)만은 살아 있어 깨끗한 그 영혼(靈魂)255)은 만리 장공에 높이 떠구나. 창천도 느끼난 듯 일광도 빛이 없고 날아가는 새짐생²⁵⁶⁾도 허공중천 떠돌고 산천초목(山川草木)이 넋을 일고 고요하니 서서 있다. 여보시오 여러 동포 이팔청춘(二八青春)257) 어린 처녀 나라에 몸을 바쳐

였다. 1907년 고종의 밀사로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 행위를 세계에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측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순국하였다.

243) 만국회(萬國會) : 만국(萬國) 평화(平和) 회의(會議). 제정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이세의 주창으로 1899년과 1907년에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모여 군비 축소와 세계 평화를 논의한 국제회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협약, 독가스 및 특수 탄환 사용 금지의 선언 따위를 채택하고 국제 중재 재판소를 설치하였는데, 2차 회의 때에 고종이 밀사를 파견하여 당시 일본의 대한 제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호소하고 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244) 얻다 : ‘어디에다’가 줄어든 말.

245) 흉폭한 : ‘흉포(凶暴)한’의 비표준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흉폭하다’ 항목 (ko.dict.naver.com/#/search?query=%ED%9D%89%ED%8F%AD%ED%95%98%EB%8B%A4) 참고.

246) 육장(肉醬) : 쇠고기를 잘게 썰어서 간장에 넣고 조린 반찬.

247) 뺏지야 : ‘빼앗지야’의 준말.

248) 적국지수(敵國之首)는 아국지수(我國之讐)요 아국지수(我國之首)는 적국지수(敵國之讐) : 적국의 우두머리는 우리나라의 원수(怨讐)요, 우리나라의 우두머리는 적국의 원수이다.

249) 쇠끌이에다 불을 붉게 달아서 : 사설에 따라, ‘쇠꼬치에다 불을 붉게 달궈’를 쓰기도 한다.

250) 포악(暴惡) : 사납고 악하다.

251) 진(盡)하니 : 진(盡)하니. 다하여 없어지니.

252) 피육(皮肉) : 가죽과 살을 아울러 이르는 말.

253) 죽탕 : 맞거나 짓밟혀 몰골이 상한 상태.

254) 의혈(義血) : 정의를 위하여 흘린 피.

사설에 따라, ‘의열(義烈)’을 쓰기도 한다.

255) 영혼(靈魂) : 사설에 따라, ‘죽염’을 쓰기도 한다.

256) 새짐생 : 새짐승[날짐승].

‘날짐생’은, ‘날짐승’의 전남 방언.

257) 이팔청춘(二八青春) : 16세 무렵의 꽃다운 청춘. 또는 혈기 왕성한 젊은 시절.

순국열사(殉國烈士)²⁵⁸⁾ 허였단 말 나는 고금천지(古今天地)²⁵⁹⁾ 처음이요, 반만년 역사 중에 아름다운 이 이름²⁶⁰⁾은 명전천추(名傳千秋)²⁶¹⁾ 그 아닌가. 어화 세상 사람들아 만세 의흔(義魂)²⁶²⁾께 축배(祝杯) 허세.

[중중모리]

어화 청춘 소년들아²⁶³⁾ 관순 씨의 본을 받아 나라 위하여 일합시다. 인생은 최귀(最貴)하오,²⁶⁴⁾ 만물(萬物)의 영장(靈長)²⁶⁵⁾이니 대의지신 굳게 뭉쳐 각기 의무를 지킬지라. 예로부터 충의절은 이 나라의 기둥이요 간인(奸人)²⁶⁶⁾ 중의 탐욕자(貪慾者)는 만세 추명(醜名)²⁶⁷⁾이 한심구나. 부귀는 지내가고 공명(功名)은 부운(浮雲)²⁶⁸⁾이라 일시(一時) 허영(虛榮) 부린 지신²⁶⁹⁾ 추호(秋毫)²⁷⁰⁾도 두지 말고 정의를 바로 하야 이 강산 이 땅 위에 만세 영화(榮華)²⁷¹⁾ 빛내기는 여러 청춘들의 책임이라.

258) 순국열사(殉國烈士) :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장렬히 싸운 사람.

259) 고금천지(古今天地) :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온 세상.

260) 이름 : 사설에 따라, ‘죽엄’을 쓰기도 한다.

261) 명전천추(名傳千秋) :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전해지다.

262) 의흔(義魂) : 의로운 넋.

263) 어화 청춘 소년들아 : 사설에 따라, ‘어화 세상 사람들아’를 쓰기도 한다.

264) 최귀(最貴)하오 : 가장 귀하오.

265) 영장(靈長) :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사람’을 이르는 말.

266) 간인(奸人) : 간사한 사람.

267) 추명(醜名) : 깨끗하지 못한 일로 더러운 평판이 난 이름.

268) 부운(浮雲) : 덧없는 세상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69) 지신 : ‘치심(侈心)’인 듯하다.

270) 추호(秋毫) :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1) 영화(榮華) :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나다.